

「암」이란 인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종양에는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양성종양은 포립,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발견 즉시 수술을 받으면 100% 완치될 수 있으나 악성종양인 암은 발병 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건강한 조직 장기에 침입하여 암 조직을 번식시킨다.

따라서 정상조직의 기능에 마비현상이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진 병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의학이 발달하였음에도 해마다 약 5백50만명이 이 병에 걸리고 그 중 약 2백50만명이 생명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여성은 자궁, 난소, 외음부, 질부, 수란관 등의 생식기와 유방 등에 암이 발생하며(여성암 중의 약 50%) 이 중에서도 특히 자궁암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궁경관암은 여성 성기의 악성종양중 가장 흔한 종양이며 자궁체부암보다 6배나 높은 발생 빈도를 차지한다.

자궁경관암은 조기 진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치료 예후가 좋다. 비록 조기 진단 후라 할지라도 암 세포의 전신적인 전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예도 적지 않다.

자궁경관암은 그 진행도에 있어서 초기에 발견만되면 100% 완치시킬 수가 있다. 최근에는 웬만한 큰 병원에서는 쉽게 자궁경관 분비물과 질 분비물을 채취하여 단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 없이 즉석에서 암세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인들은 누구나 6개월마다 정기적인 자궁암 조기진단을 위한 세포 검사를 받도록 생활화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예방책이다.



근 시 (近視)

<건강백과>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너무나 안경 쓴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은 모두 원시인가 근시인가? 근시의 원인은 안축설과 굴절설이 있다.

안축설이라 함은 안축이 늘어진 때문에 수정체를 통해 온 그림자가 망막보다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근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굴절설은 수정체의 두께가 늘어나 굴절력이 커져서 망막보다 앞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는 주장이다.

가성근시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눈을 조절하고 있는 모양체근이 긴장하여 있기 때문에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근시가 되는 이른바 굴절근시이다.

보통 근시는 가성 근시에서 시작되는데 오랜동안 눈 가까이 물건을 붙여보고 있으면 수정체를 두껍게 하여 모양체관을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하므로 가성근시가 생긴다. 그 결과 모양체근은 피곤해서 조절 능력을 잃고 늘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양체근의 풀림이 없어진 안구는 늘어나 안축이 늘어져 가벼운 근시가 된다. 또 수정체도 모양체

근의 누름이 늦춰져 얇게 되고 안축의 늘어짐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러나 안구는 길게 늘어진 풍선처럼 점점 안축방향으로 늘어 남으로 수정체의 보충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차가 심한 것이 고도근시이다.

모양체근의 긴장이 약해져서 가성 근시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근시는 더 나빠진 것이 있고 고도경시나 가벼운근시 어느 쪽에도 모양체근의 늘어짐이 보인다.

근시에는 또 유전설과 환경설이 있다. 양친이 근시이면 아이들도 근시가 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 사무직 등이 근시가 많은 것은 환경의 영향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인산제를 먹은 게가 근시가 되는 것을 보면 근시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있다. 근시는 일반적으로 17~18세에 진행하여 22~23세 또는 24~25세에서 그친다. 근시의 치료는 모양체근의 긴장을 풀어 주거나 기계적으로 조금씩 거리를 멀게 내다보는 폭주 조절분리훈련기라는 장치를 활용하면 다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 아동들의 정신 상담에서 등교 거부와 함께 다동증이 많이 띄고 있다.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귀찮게 구는 아동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은 선생이나 부모들로부터 다루기가 어려워 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수도 있으므로 정신과의사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지능은 정상적이거나, 거의 남자들에게 많이 생기는 증세의 하나이다. 수업 중에 교실내를 뛰어다니는 아이가 학교로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공부 방해가 된다고 하여 등교 금지를 당한 경우가 있다.

또 하나, 머리는 좋은데 수업중 싱글벙글 재잘재잘하여 성적이 불량한 아이가 있다. 선생이 부모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해서 뇌파 검사를 해 본 결과 뇌의 일부가 늦게 성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왜 나쁜지는 알수 없었다.

어릴 때 조그마한 뇌 손상을 받으면 중추 신경의 성숙이 다소 늦어지고 억제력이 나빠지는 때문에 장난기

등 충동적인 행동이 4~5세부터 나타났다가 10세 정도가 되면 다동증은 없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하나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집안이 어려워 정서적인 환경을 누리지 못해서 생기는 수도 있다. 집안에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학교에 가면 선생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라고 일방적으로 옥박질을 당해서 친구들에게 쌓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을 좋게 해주면 낫는 수도 있으나 주위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이들이 약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인데 교실에서 뛰어나고 물건을 함부로 부순다든지 충격적인 행위가 계속될 때는 뇌파 검사를 포함하여 신경학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뇌장애가 발견되는 수도 있다. 이런 애들은 보통 사춘기까지는 100% 치료가 되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인다든지 학교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된다든지 해서 부모나 선생을 괴롭히게 된다.